

대표적인 이론은 정신분석학이며,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적 치유도 이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 현재의 증상의 원인으로서 과거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상처를 들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며 병인에 대한 통찰(Insight)을 갖게 됨으로써 현재의 증상으로부터 완화되며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방법이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태도이다.¹⁵⁾

20세기 심리학의 역사에 정신분석학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많은 이론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이론이 가족치료이다. 가족치료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는데 시스템적 접근의 인간이해는, 현재의 증상이나 상태를 이해할 때 단선적 인과관계나 복합적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현재의 증상과 유기적이며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들에 변화를 야기시키며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생태학적인 관계성 속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병리성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예를 들면,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가계의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가족들과의 상호적인 관계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 그 가족 속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그 가족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스템들과 어떻게 그 가족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환경, 혹은 영적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저주받은

삶을 해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가계저주는 가족치료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가계저주론자들은 가족 시스템 이론의 창시자인 머레이 보웬(Murray Bowen)의 8가지 주요개념 중 다세대간 전수과정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이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가계도를 통하여 최소한 삼사대의 가족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삶은 희노애락이라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면들로 엮이는데, 우리는

이 점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세대간 전수과정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보웬의 자기 개별화 (differentiation of self) 개념을 아울러 이해해야 한다. 즉 한 세대의 자기 개별화의 수준은 그 이전 세대의 자기 개별화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다음 세대도 그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세대간 전수과정 개념은 어느 정도 결정론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가계저주론처럼 결정론적인 개념은 아니다. 세대간에 자기 개별화의 수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세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들과 병리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영적인 설명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사대까지 저주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